

광주시교육감 시민공천투 출범...단일화 ‘시동’

오늘 총회...후보 선출방법 등 논의

8일 발표...‘노무현’ 직함 사용 관련

김용태·오경미·정성홍 입장차 ‘뚜렷’

내년 6월 치러지는 광주시교육감 선거가 일찌감치 다투어 올린 가운데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기구가 출범한다.

3일 (가칭)광주민주진보시민 교육감후보 시민공천위원회에 따르면 4일 전일빌딩에서 출범 총회를 갖고 조직 구성과 시교육감 단일후보 선

출 등을 위한 사업계획 전반을 논의하고 오는 8일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든 김용태 전 광주전교조 지부장과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성홍 전 광주전교조 지부장은 시민공천위원회를 통해 단일화 한 뒤 이정선 교육감과 1대1 구도로 선거를 치르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세 예비후보는 단일화의 방식과 시기, 절차 등을 시민추진위원회에 일임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단일 후보 선출 방법으로는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 등 2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며, ‘노

무현’ 직함 사용 여부가 단일화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미 ‘노무현’ 직함 사용을 놓고 오경미 전 국장과 정성홍 전 지부장이 여론조사 보이콧을 하는 등 후보 간 입장차가 뚜렷해 진통이 예상된다. 오경미 전 국장은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경력 외의 것을 부각시키면 여론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노무현’ 직함을 넣으면 단일화 테이블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용태 전 지부장은 “직함은 법적 문제가 없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살아온 이력을 지울 수 없으므로 양보를 할 수도, 타협

을 할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성홍 전 지부장은 “시민공천위원회가 단일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후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일화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단일화 기구에 맡기고 뜻을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공천위원회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김현주 광주전교조 지부장은 “오는 8일 출범 기자회견에서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라며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광주교육의 방향과 정체성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옥 기자

광주·전남 울겨울 첫 ‘대설특보’

전남 일부 지역에서 울겨울 첫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광주에서도 첫눈이 관측됐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흑산면 제외산인 전역·영광·무안·함평·장성 등 전남 곳곳에서 울겨울 첫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첫 발효는 신안에서 오전 9시30분이며 영광에서 오전 11시40분, 정오에는 장성·무안·함평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중국 북부지방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 구름대가 유입됐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다만 함평·장성은 오후 5시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으며 같은 시간 적설량은 신안 1.7cm, 영광 2.8cm, 무안 0.7cm로, 폭설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광주 역시 전남 오후 11시40분께 첫눈이 관측됐으나 적설량이 측정될 정도의 눈은 내리지 않았다. /서형우 기자



ACC 어린이문화원 재개관

3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어린이문화원에서 열린 재개관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마스코트 캐릭터와 함께 ‘자연과 생활’로 개편된 체험관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5·18기록관 ‘개관 10주년 특별전’ 개막

금남로 집단발포 공간·시간적 재해석

오월일기 등 공개...내년 3월1일까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3일 개관 10주년 기념특별전 ‘1980년 5월 21일, 금남로를 보았다’를 개막했다.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내년 3월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전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1980년 금남로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기록관의 역할과 위상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1980년 5월21일 금남로에서 발생한 집

단발포의 맥락을 공간적·시간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그날의 진실에 다가가고 아카이브가 지닌 본질적 의미를 성찰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는 프롤로그와 3개 섹션으로 이뤄졌다. 프롤로그는 ‘금남로’라는 공간과 ‘1980년 5월21일’이라는 시간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 당시의 현장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장에는 전남도청, 분수대, 시계탑을 중심으로 상무관, 전일빌딩, 가톨릭센터, 광주YMC A, 광주관광호텔 등이 당시 모습에 가깝게 재현돼 금남로의 장소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1부 ‘1980년 5월21일 금남로’는 1980년 5월20일 오후의 대규모 차량시위와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 광주역 발포 이후 금남로에 모여든 시민들의 움직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한다.

제2부 ‘금남로 기록의 교차’는 1980년 5월21일 금남로의 실제 모습을 담은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의 맥락을 살핀다.

2018년 공개된 기록관 발굴 영상은 군·경 뒤쪽에서 촬영된 시신을 보여주며 올해 새로 수집된 자료는 시민이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서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제3부 ‘금남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아카이빙 과정과 아카이브

트의 역할에 주목한다.

새롭게 발굴된 기록들은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억을 축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5·18민주화운동을 과거의 사건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잇는 살아 있는 역사로 재해석하도록 이끈다.

또 5·18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이라는 과제를 넘어 광주와 광주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으로 구성됐다.

올해 기증된 차명숙 컬렉션, 장식의 오월일기, 문제성 영상 관련 자료도 이번 전시에서 함께 공개된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기록은 사건을 증거할뿐 아니라 기억의 매체로서 과거를 재현하고 새로운 세계를 구성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그 성격과 의미가 더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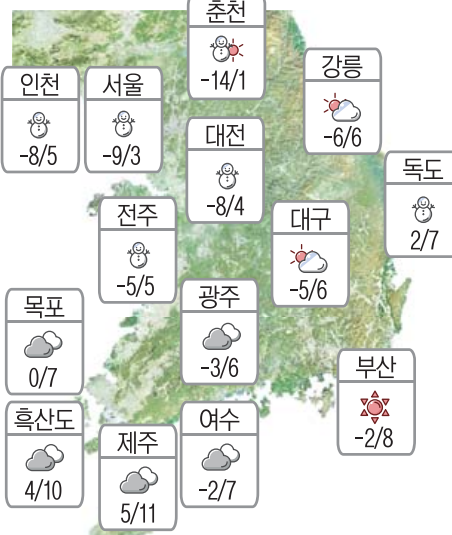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5 해질 17:20 🌙달돋이 16:21 달질 06:25

●광주·전남 날씨

광주	구름많음	-3/6	장성	눈	-5/5
목포	구름많음	0/7	보성	구름많음	-5/6
여수	구름많음	-2/7	함평	구름많음	-3/6
나주	구름많음	-4/6	순천	구름많음	-4/7
완도	구름많음	0/9	영광	눈	-4/6
구례	눈	-5/6	진도	구름많음	1/9
강진	구름많음	-2/8	흑산도	구름많음	4/10
해남	구름많음	-2/8	고흥	구름많음	-4/8
광양	구름많음	-2/8	담양	눈	-5/5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1.5-3.0	1.5-3.0
남해 앞바다(북)	1.5-3.5	1.5-3.5
남해 앞바다(남)	1.5-3.5	1.5-3.0
남해 앞바다(동)	1.0-2.0	1.0-2.0
남해 앞바다(서)	1.5-3.5	1.5-2.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0:41	06:14	08:25	01:45	09:07	02:43
	13:34	18:59	20:30	14:29	21:06	15:41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40

세 차 20

감기 조심해요

세차는 다음으로

빨래 30

운동 30

세탁이 쉬는날

실내운동 즐겨요

●주간 날씨

5일(금)	6일(토)	7일(일)
☀(0/7) 맑음	☁(-2/12) 구름조금	☀(4/15) 맑음
8일(월)	9일(화)	10일(수)
☀(5/9) 맑음	☀(1/9) 맑음	☁(0/11) 구름조금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고 인정이 넘치는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 장이 서는 날 ◎
2,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보성군 광고문의 : 062)650-2099